

조선시대 파주목 객사의 위치 및 복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and The Restoration of Pajumok Gaeksa in Chosun Dynasty

Park, Jin-Hong **박진홍*** 정회원, 희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주) 대표, 박사 수료

Lee, Yeon-Ro **이연노** 정회원, 공학 박사

Han, Dong-Soo **한동수**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 박사

Abstract: Paju was a key point of transportation and defense of two capitals: in the eastern surroundings of Gaegyeong in the Goryeo era; while it was in the western surroundings of Hanyang in the Joseon era. Paju includes two tombs and buildings for kings (neungchim) such as Jangneung and Samneung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era, Pajumok was a major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ed to 'Pajumok' during the 5th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Dynasty. Pajumok also has a temporary palace(Haenggung) where the king stayed while admiring the royal tombs in Paju. Pajumok Gaeksa (official guesthouse) was converted to a schoo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the Joseon Dynasty lost its national power. In this study, the exact location was estimated by analyzing Paju's local records(Eupji) and old maps, and modern cadastral maps. This thesis confirms the usage behavior of Pajumok and the size of the guest house through the records of the time, such as Authentic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Seungjeongwon Diary. Accordingly, a restoration plan was prepared based on the results by analyzing the photos related to the Pajumok guest house. Through the significance of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Pajumok Gaeksa, this study intends to serve as a contribution to the Pajumok's restoration work in the future.

Keywords: Pajumok(坡州牧), Gaeksa(客舍), Location, Restoration
파주목, 객사, 위치, 복원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파주는 고려 개경의 동교(東郊)이자, 조선 한양의 서교(西郊)로서 교통의 요지이며 수도 방비의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대에는 왕조의 부흥을 위해 도성을 이전하자는 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

또한 파주는 장릉(長陵), 삼릉(三陵; 恭陵, 永陵, 順陵)을 비롯한 조선시대 능침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며, 인근으로는 서삼릉을 비롯하여 제릉 등 능원이 산재해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파주는 도성 근교의 주요한 행정치소이면서 국왕이 파주 소재 왕릉에 능행할 때 유숙하던 행궁이었다.

근래 파주목 관아지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5년 파주목 관아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파주목 관아지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9년 파주목 관아지복원추진위원회가 발기되었고, 같은 해 파주시에서 파주 객사 복원과 관련된 학술고증연구사업이 진

행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 또한 근래 파주목 관아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 공간구조의 구성을 증명하는 연구²⁾가 발표되어, 파주목 관아의 위치를 현재 파주초등학교와 군부대로 추정하였으며, 관아의 공간구조가 동헌 및 객사를 비롯한 6개의 건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파주목 객사의 건축사적 의미와 함께, 객사의 위치를 보다 더 명확히 추정하고, 사진을 분석하여 객사의 원형을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 파주 객사의 복원에 기여하는 연구 토대가 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파주목 객사의 위치 및 원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첫째, 파주 지역의 읍지 및 고지도를 분석하여 위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1913년 지적도는 파주 객사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당대 기록을 통해 파주목 객사의 이용행태를 확인하고, 조선 후기 읍지 기록을 통해 객사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셋째, 파주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파주목 객사 관련 사진을 대상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rki777@hanmail.net

** 이 논문은 2019년도 파주시에서 발주한 '파주목 객사영역의 건축특성 학술고증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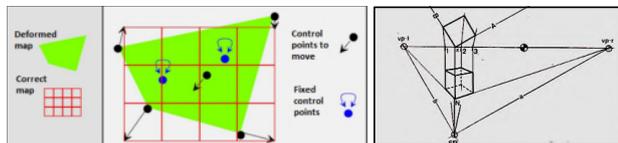
1) 파주군지 상, 파주군, 1995, p.3.

2) 백종철, 조선시대 파주목 관아의 위치 추정과 공간구성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 2019.

으로 분석하여 도면화하였다. 이것은 전경 사진(부분 사진 포함) 3장과 근경 사진 11장, 총 14장으로. 이중 건물의 확인이 용이한 사진을 선정하여 건축 입면 형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진 자료의 분석은 러버쉬팅 변형(Rubber-Sheeting Transformation, 고무판 변형) 방식과 투시도에서 평면도법 방식을 적용하였다. 러버쉬팅 변형은 호모그래피 변환의 이론과 유사한 기하학 및 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이 기술은 지도 제작시 원도에 기하학적인 변형이 생길 경우, 좌표를 조정하여 그 결점을 보완·수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1>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녹색 영역은 변형된 지도를 나타내는 반면, 검은색과 파란색 점은 변형을 수정하고자 하는 제어점을 나타낸다. 서로 동일한 관계에 대해서, 러버쉬팅 변형은 참고 시스템에서 4점을 줄 경우, 다른 기준 시스템과 상응한 4점으로 변환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는 또한 러버쉬팅 알고리즘이 한 기준 시스템에서 다른 기준 시스템의 해당 4각형으로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변형된 사진의 왜곡을 바로 잡고 난 후에는 평면도법을 적용하여 주간 등 평면과 입면을 분석한다. <그림 2> 원래 평면도법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사각형의 평면을 바탕으로 투시원근법이 적용된 정육면체를 작도하는 방법이나 본 분석에서는 역으로 투시도법이 적용된 사진을 바탕으로 평면과 입면을 확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러버쉬팅 변형 방식 개념도 <그림 2> 평면도법의 작도

2. 파주목 객사의 연혁과 위치 추정

2.1 파주목 객사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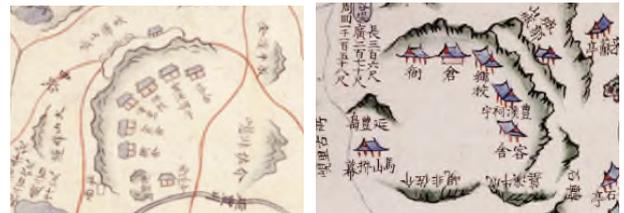
객사는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정청에 모시고, 삭망(朔望)으로 수령이 향궐망배를 행하던 곳으로 고을의 상징과 같은 건물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지방에 파견된 신하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객사에 전패를 봉안하게 되었고, 객사의 중요도는 더욱 부각되었다. 전패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절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었다. 고을의 백성들에게 객사는 국가 자체였으며, 객사는 다른 어떤 건축물에 비하여 소중하게 여겨졌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조선인이 소중하게 생각한 객사를 가장 먼저 파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인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여 객사를 파괴하는 대신에 다른 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선이 나라를 뺏긴 이유는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며, 일본이 조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마땅한 학교가 없으니, 각 고을에 위치한 객사를 학교로 전용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1911년에 전국의 객사가 학교로 전용되었다. 또 객사의 정청에 봉안되었던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또는 쥬패)는 모두 반납하였다. 파주목 객사는 같은 이유로 1909년 파주공립보통학교로 전용되었고,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어 현재는 기무부대 경내에 그 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2 지적도를 이용한 파주목 객사의 위치 추정

파주목 서쪽으로는 해발 215.5m의 봉서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해발 220.0m의 명학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파주목의 주요 시설은 봉서산을 주산으로 하여 산자락에 모여있다. 따라서 향교를 비롯한 동헌 등이 모두 동향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여러 시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객사만은 봉서산을 주산으로 설정하지 않고 봉서산에서 뻗어 내린 산자락을 주산으로 설정해서 남향한 특징이 있다.



<그림 3> 『해동지도』 「파주목」, 18세기 중반

<그림 4> 『광여도』 「파주목」, 19세기 초



<그림 5> 파주목 객사 위치 추정(출처 : 구글 어스, 2019)

파주목 지적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인 1913년도에 제작된 지적원도가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확인된다.<그림 6> 먼저 객사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부대 일원의 현재 지적 상황을 보면,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77번지’의 지적 경계가 다른 지적과 다르게 장방형 건물의 외곽 형상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원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두 지적도 모두 필지 형태가 정방형으로 표현

되어, 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건물의 지적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것은 1913년에 존재하고 있었던 파주목 객사가 점유하던 땅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폐쇄등기부등본의 기록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기록만 확인 가능하였지만, 377번지의 경우 토지 대장에서 그 규모가 94평으로 복원 시 객사가 그 위치에 건립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적 경계의 배치 축 확인을 통해 건물의 좌향은 파주군 읍지에 기록된 자좌오향(子坐午向, 남향)이 아닌 지형의 형세에 따라 임좌병향(壬坐丙向, 동측으로 15도 가량 기운 남향)으로 배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 지적원도<그림 6>를 보면 파주목 객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개천(파란색) 및 주변 도로의 형태 파악 또한 가능하다. 특히 객사의 전면에 위치한 도로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객사의 위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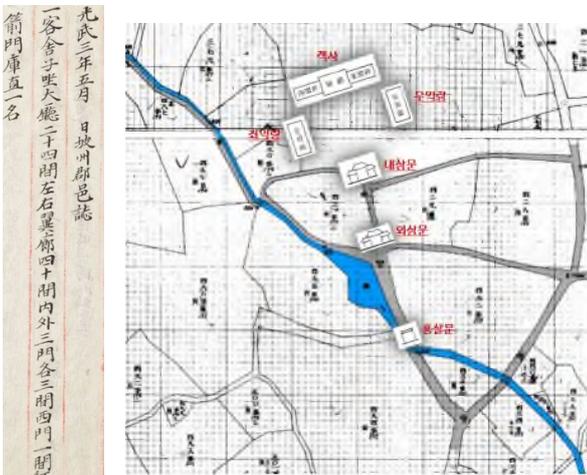


<그림 6> 파주목 객사 주변 일제강점기 지적원도(1913)



<그림 7> 파주목 객사 주변 지적 현황(출처: 네이버 지도)

그 밖에 『파주군읍지』(1899)에 기록된 객사 및 부속시설 기록과 일제강점기 지적원도를 토대로 배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파주목 객사는 399번지에 위치하고, 그 전면 좌우로는 익사가 위치하며, 그 전면의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내삼문이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앞으로 도로가 십자로 교차되는 지점에는 외삼문이 위치하고, 개천을 건너 바로 전면으로는 홍살문이 위치하는 것이 타당한 추정일 것이다.<그림 8> 이것은 추후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파주군읍지(좌)와 파주목 객사 주요 시설 추정 배치(우)

3. 기록으로 본 파주목 객사의 이용행태 및 규모

3.1 기록으로 본 파주목 객사의 이용행태

1) 『조선왕조실록』

파주에는 인조의 장릉(長陵)을 비롯해 공릉(恭陵), 순릉(順陵), 영릉(永陵) 등 다수의 왕릉이 있다. 이들 왕릉에 친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임금들은 수시로 파주에 들러 파주행궁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영조의 경우에는 모친의 묘소인 소령원(昭寧園)이 파주에 위치하고 있어 왕릉에서 친제를 지낸 다음 소령원에 들러 재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 파주는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개경으로 행차하는 경우 파주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하였다. 임금이 파주행궁에 머무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 관찰사를 파주로 불러 각 지방의 사정을 듣기도 했고, 마을의 노인들을 불러 그해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등 마을 사정을 물어보고 세금을 탕감해 주기도 하였다. 또 객사 마당에서 인근 백성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실시해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였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임금의 파주 행차

	연 대	내 용
세조	1460년 10월 5일	대가가 파주에 머물다.
	1687년 10월 9일	임금이 장릉에 행행하였다.
숙종	1693년 8월 28일	풍덕의 후릉을 전알하려고 저녁에 파주의 행궁에 유숙하다.
	1731년 8월 17일	여기가 장릉에 이르다.
영조	1740년 8월 29일	후릉에 나아가기 위해 파주까지 이르다.
	1780년 9월 3일	영릉에 제사지낸 후 파주에 머무르다.
정조	1784년 8월 16일	영릉을 배알하기 위해 친압(親押) ¹⁰⁾ 하고 부모들을 소견(召見) ¹¹⁾ 하다.
	1789년 2월 13일	파주 행전에서 각 영의 장관들에게 활과 총쏘기를 시험하였다.
순조	1808년 8월 9일	영릉에 나아가 전알 ¹²⁾ 하고 제사하다.
	1842년 3월 10일	파주목의 행궁에 나아가 경숙하다.
현종	1847년 2월 21일	파주목에 있는 행궁에 나아가다.
	1850년 3월 10일	파주목의 행궁에 나아가 밤을 지내다.
철종	1851년 3월 15일	파주 행궁에 나아가 유숙하다.
	1854년 3월 10일	파주목 행궁에 나아가 유숙하다.
	1855년 8월 4일	파주목의 행궁에 나아가다.
고종	1871년 2월 18일	장릉에 행행하여 파주의 행궁에서 경숙하다.
	1872년 3월 1일	제릉과 후릉에 행행하고 파주의 행궁에서 경숙하다.

2)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임금이 파주행궁에 머물렀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파주 읍내의 어떤 건물에서 숙박했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파주에 행궁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는지, 혹은 객사에서, 또는 동헌에서 숙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술이 부족하다. 반면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비해 훨씬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구체적인 임금의 숙박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파주목 객사

연 대	내 용
숙종	1687년 11월 2일 금번 능행시 파주목 객사를 이미 행궁침전으로 사용하였다. ³⁾
	1731년 9월 28일 고양 파주 객사는 어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열쇠로 잠가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⁴⁾
	1731년 9월 28일 파주·고양 객사에 이전 예와 같이 사신을 들이도록 하라. ⁵⁾
영조	1740년 8월 3일 파주목 객사가 크게 기울어 수리해야 하니 목사처소인 동헌을 고쳐 임금의 숙박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⁶⁾
	1740년 8월 3일 옛 선왕들께서도 파평관에 주무셨는가? ⁷⁾
	1769년 3월 11일 파주의 대부분 공해를 수리했습니다. 객사 역시 기울어 무너지려고 해서 당시 목사 이윤덕이 고쳐 지었습니다. ⁸⁾
고종	1872년 3월 8일 이 행궁의 문밖으로 나갔다. 이어 본 고을의 파평관(坡平館)으로 나아갔다. 상(왕)이 이르기를, “각 고을의 전패가 모두 이와 같은가? 내가 처음 본다.”하니, 조정회가 아뢰기를, “대부분이 모두 같습니다.” 하였다. 상(왕)이 파평관 문밖으로 나갔다. ⁹⁾

위에 제시한 숙종과 영조 때의 기록에 의하면 임금이 파주에 들러 머문 장소가 행궁이 아니라 객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이 머무는 장소를 모두 행궁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실제 머문 장소가 파평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종 때 기록에서만 파평관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에서 파주행궁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대부분 파주목 객사에서 숙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3) 『연행록』

연행록은 매년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기록한 일기를 말한다. 한양을 출발해서 북경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 여정의 초반에 대부분 파주목 객사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연행록은 파주에서 1박 하였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했으나 이해응의 『계산기정(蔚山紀程)』과 이항익의 『연행일기(燕行日記)』에서는 파주목 객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3) “弘望曰, 今番陵幸時, 坡州客舍, 既爲行宮寢殿, 往來使客, 不敢入處, 況使行, 今方離發, 明日當到坡州, 而客舍, 不能入處, 則許多人員, 無止泊之處, 合有變通之道, 先朝溫幸時所經別邑客舍, 還都後, 亦卽爲下教, 使之入處矣. 上曰, (數序缺) 勿以傳教分付, 而依前入處, 可也.”
- 4) “上曰, 高陽·坡州客舍, 以經御寢之故, 封鎖不用云, 此後則依前入處事, 分付可也. 上到昌陵外坪, 招左副承旨李聖龍曰, 彼山赫土露處, 乃是昌陵內耶? 似緣斫伐樹木而然矣. 卽遣宣傳官摘奸後, 使之來告于政院, 可也.”
- 5) “傳于朴文秀曰, 坡州·高陽客舍, 依前使客入處事, 分付.”
- 6) “在魯曰, 聞坡州客舍, 盡爲傾頽, 決無及期修改之勢, 故本州欲以牧使所處東軒, 修理以待, 而御宿之所, 非客舍則不可不預爲稟白, 故敢達矣. 上曰, 從便爲之, 可也.”
- 7) “申時, 上次坡州坡平館. 御步輦時, 上曰, 此是昔年先王所御之坡平館耶右副承旨宋教明曰, 然矣.”
- 8) “鳳漢曰, 坡州諸公廨皆一新, 而客舍亦方頽圯, 故時牧使李潤德, 今方經紀改建, 坡州之故, 長湍亦興起, 客舍之多年廢棄者, 前府使趙德濟, 經理財力, 欲爲改建, 而未及始役而徑遞, 新府使尹洸, 繼而設始, 而此兩處, 以畿邑事力, 告訖未易, 如此之役, 例有朝家顧助之事, 令畿伯卽爲狀聞後, 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 9) “出行宮門外, 仍詣本邑坡平館. 上曰, 各邑殿牌, 皆若是乎? 予所初見也. 定熙曰, 舉皆同然矣. 上出館門外.”

<표 3> 연행록에 기록된 파주목 객사

구 분	연 대	내 용
『계산기정』 제1권	1803년 10월 22일	저녁에 파평관에 도착하여 이내 청각루에 올라갔다. 읍의 터는 정연하게 왕기(王畿) 인접지의 큰 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관아의 북쪽에 행궁이 있는데 행행시 임금께서 머무르신다. 봉사당에 들어갔다. ¹⁰⁾
『연행일기』	1862년 10월 22일	고양을 출발하여 파주의 파평관에 이르렀다. 상사는 원각헌(圓覺軒)에서 묵었다. 나와 의어 및 그의 일가붙이는 원각헌의 서쪽 건물에서 묵었다. 순서는 고양에서 집으로 되돌아갔다. 파주목사(坡州牧使) 손양석(孫亮錫)은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두루 수응(酬應)하며 자못 은근한 뜻이 있었다. 이 날 40리를 왔다. ¹¹⁾

이에 따르면 관아의 북쪽에 행궁이 있었으며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들은 객사가 아닌 다른 시설에서 숙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주 동헌은 현 파주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였고, 그 북쪽에 옛 파평관이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에 객사를 행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기록으로 본 파주목 객사의 규모

파주목에서 발간한 읍지는 현재까지 3편이 전하고 있다. 1841년, 1871년, 1899년에 기록된 읍지들이다. 이들 읍지는 모두 객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3편의 읍지는 객사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1) 1841년 『파주목읍지』

1841년 『파주목읍지』 공해(公廩)조에는 동헌, 내아, 객사의 칸수가 기록되어 있다. 동헌은 10칸에 동향이며, 내아는 13칸, 객사는 18칸에 남향이라고 되어 있다. 후대의 기록에 비해 객사의 칸수가 적게 기술된 특징이 있다.

2) 1871년 『파주목읍지』

1871년 『파주목읍지』 역시 공해조에 동헌, 원각, 내아, 객사의 칸수를 기록하였다. 동헌은 10칸, 원각은 19칸, 내아는 15칸, 객사는 67칸이라고 한다. 1841년 『파주목읍지』와 비교하면 객사의 규모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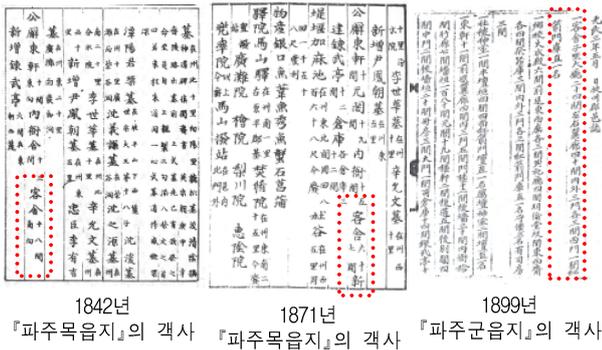
3) 1899년 『파주군읍지』

1899년 『파주군읍지』는 앞선 읍지들과 다른 형식으로 건물들을 기술하고 있다. 객사, 동헌을 각기 따로 기술했고, 객사와 동헌을 구성하는 개별 건물의 칸 수를 자세하게 기록한 특징이 있다.

1841년, 1871년, 1899년에 기록된 읍지에서 각기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건축물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 대해 규모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객사의 범주를 어떻게 포함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10) 出城○癸亥十月二十二日 坡平館, “夕到館, 仍登聽角樓. 邑址井井, 儘畿輔雄鎮. 衙軒之北有行宮, 幸行時所御也. 入處鳳樓堂.”

11) “二十二日庚子 晴白, 高陽到坡州坡平館. 上使宿于圓覺軒. 余與翼汝諸宿于軒之西閣. 舜瑞自高陽還歸. 牧使孫亮錫上酬下應頗殷勤底意. 是日行四十里.”



<그림 9> 파주목 관련 읍지 내 객사 기록

4. 파주목 객사의 건축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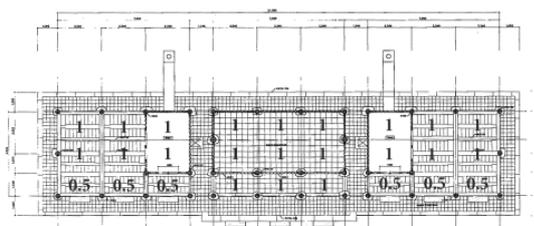
4.1 문헌으로 고찰한 파주목 객사의 형태

1) 정청의 규모

1841년 『파주목읍지』에는 객사를 18칸에 남향이라고 하였고, 1871년 『파주목읍지』에는 객사를 67칸, 1899년 『파주군읍지』에는 대청 24칸, 좌·우익랑 40칸, 내외삼문 각 3칸, 서문 1칸, 홍살문 등 총 71칸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기록은 모두 같은 건물에 대한 기술로 판단된다.

1841년 『파주목읍지』의 18칸은 객사의 부속시설을 배제한 채 정청만을 대상으로 칸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객사는 정면 9칸, 측면 2칸인 경우가 많다. 이때 총 칸수는 9칸 × 2칸 = 18칸이 된다. 파주목 객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871년 『파주목읍지』의 67칸은 객사를 구성하는 모든 건물의 칸수를 합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건물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899년 『파주군읍지』에서는 객사를 “대청 24칸, 좌·우익랑 40칸, 내외삼문 각 3칸, 서문 1칸, 홍살문”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1841년의 『파주목읍지』와 정청의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의궤와 같이 건축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책에서는 칸수를 세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공존한다. 하나는 퇴칸을 1/2로 설정해서 절반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퇴칸도 하나의 칸수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하나의 의궤에서 같이 등장하기도 한다. 일정한 법칙이 없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객사의 칸 수 분석 사례(퇴칸을 반칸으로 분석)
(출처: 평택군, 팽성읍객사 실측조사보고서, 1994.)

객사의 일반적인 평면을 갖고 있는 팽성읍 객사를 대상으로 칸수를 분석하면 두 가지 칸수가 설정 가능하다. 먼저 팽성읍 객사는 정면 9칸이며, 측면이 2칸인 건물이다. 따라서 총 칸수는 9칸 × 2칸 = 18칸이라고 할 수 있다.

1899년 『파주군읍지』에서 객사 대청이 24칸이라고 기술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칸수를 계산했는지 역순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는 통상 사방 8자 면적을 1칸으로 설정하였다. 동서익헌의 측면을 각 칸마다 9자 또는 10자로 설정할 경우 측면의 길이는 총 18~20자가 된다. 이는 2칸의 크기를 초과하고 3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동서익헌은 정면 1칸마다 2.5칸 면적으로 계산해서 총 7.5칸으로 기록한 듯하다. 이렇게 하면 동익헌 7.5칸 + 서익헌 7.5칸 = 15칸이 된다. 여기에 정청의 9칸을 더하면 1899년 『파주군읍지』와 같이 총 24칸이 된다.

파주초등학교 교육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에 파주목 객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소장되어 있다. 사진에서 보이는 파주목 객사의 평면 규모는 평면이 정면 9칸, 측면 2칸이다. 따라서 1899년 『파주군읍지』에서 객사 대청을 24칸이라고 기록한 것은 팽성읍객사의 평면과 유사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칸수를 센 결과로 판단된다.

2) 정청의 전퇴 유무

현재까지 남아있는 객사 중에서 전퇴(前退)가 있는 건물의 수와 전퇴가 없는 건물의 수가 비슷하다. 팽성읍 객사와 같이 전퇴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홍성 객사와 같이 전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일제강점기 사진 자료를 비롯한 여러 자료는 파주목 객사의 외관만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위치한 고주(高柱)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1899년 『파주군읍지』에는 객사 외에 향교와 동헌을 구성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향교와 동헌의 건물을 기술하는데 있어 전퇴의 유무 역시 기록한 특징이 있다. 향교의 경우 대성전이 6칸이며 전퇴가 있다고 기록했고, 동헌도 11칸이면서 전퇴가 있다고 기록하였다.¹²⁾ 반면 객사의 정청에는 전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¹³⁾ 따라서 파주목 객사의 정청에는 전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서익랑의 특수성

1899년 『파주군읍지』에는 객사가 “대청 24칸, 좌·우익랑 40칸, 내외삼문 각 3칸, 서문 1칸, 홍살문”이라고 기록하였다. 다른 건물의 경우 칸수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좌·우익랑이 40칸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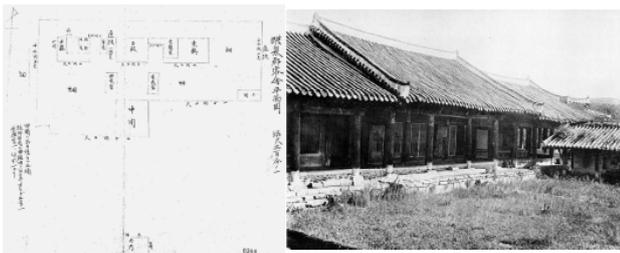
현재까지 좌·우익랑의 일반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12) “鄉校 大成殿六間前退 東西廡各三間 典祀廳四間 明倫堂攷間 東西齋各四間 祭器庫三間 內外三門各三間 紅箭門 庫直一名 守僕三名 有司房三間”

13) “東軒十一間前退 翼廊四間 內三門五間 門樓十二間 後牆三十間 內衙拾間 行廊七間 牆墻一百八十間 元閣十九間 樓軒二間 複道五間 ……”

바가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문서」 중 예천 객사를 학교로 전용하기 위한 서류에는 배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 이 배치도에서 예천객사의 좌·우익랑과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천 객사의 배치도에 따르면 동서협실(東西夾室)은 각각 3칸 정도로 추정되며, 총 6칸 정도로 규모가 작은 건물이었다. 또 성천 객사를 찍은 『조선고적도보』 사진에서도 익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그림 12>

파주목 객사의 좌·우익랑이 40칸이라면, 각 익랑은 20칸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측면을 2칸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정면이 10칸인 건물이다. 매우 긴 건물로 일반 객사에서는 효용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목 객사의 좌·우익랑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금이 행차하여 하루를 보내는 숙소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객사의 익랑보다 훨씬 크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파주목 객사의 좌·우익랑이 1899년 『파주군읍지』의 기록과 같이 40칸인지 여부는 추후 발굴에 의해 밝혀질 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객사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였다는 점에서 파주목 객사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예천 객사 배치도 (출처 : 조선총독부 문서) <그림 12> 성천 객사와 익랑 전경 (출처 : 조선고적도보)

4.2 사진으로 고찰한 파주목 객사의 외부 형태

1) 파주목 객사 외부 형태의 특징

일반적인 객사는 정청의 위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서익헌, 좌우 익랑의 순서로 위계가 설정된다. 세부 건축물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청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며, 위계의 순서에 따라 등급을 감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부 건축물에 차이를 두는 부분은 건물의 높이, 공포의 형태, 기둥의 형태, 처마의 구성 등이다. 정청은 원기둥에 화려한 공포를 갖추고 겹처마를 갖는다. 반면에 동·서익헌은 정청에 비해 등급을 낮춰 구성한다. 정청이 출목 있는 익공식(翼工式)이라면, 익헌은 출목 없는 익공 또는 공포 없는 민도리, 정청이 겹처마라면 익헌은 홑처마로 만든다.

파주목 객사 역시 정청의 위계를 높게 설정했다. 동·서익헌과 비교하면 기둥 및 공포의 형태, 처마의 구성은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으며, 오직 정청의 높이에서만 차이를 두었다. 이렇듯 높이를 제외하면 정청과 익헌의 위계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다른 지역 객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특징으로서 파주목 객사가 행궁의 역할을

담당한 것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과 좌우익헌의 용마루 라인은 동일 선상에 위치한다.<그림 13> 정청의 지붕형태는 맞배지붕, 좌우 익헌은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었고, 지붕마루에는 강회를 바른 양성을 두었다. 용마루 양단에는 용두를, 내림마루 끝단에 망와를 설치하였다.

입면의 경우 교육시설로 전용되면서, 창호와 벽체는 원형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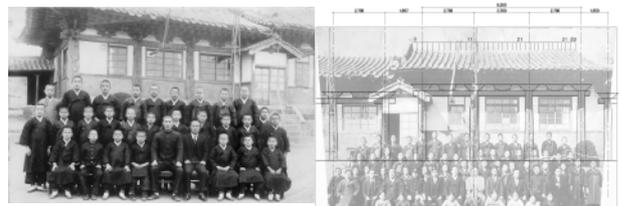
<그림 13> 파주목 객사 전경사진 분석

2) 평면과 주칸

파주교육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수의 사진에서 파주목 객사의 평면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파주목 객사는 정청과 좌우익헌을 구분해서 따로 건립한 통상적인 객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정청은 정면 3칸의 크기를 갖고 있고 측면의 크기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899년 『파주군읍지』에 기록된 칸수를 참조해 측면 역시 3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익헌은 여러 사진을 통해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반면에 동익헌의 경우 정면이 3칸인 것은 명확하지만 측면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동익헌과 서익헌의 평면을 대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동익헌 역시 측면 2칸의 평면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파주목 객사는 정청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3칸, 동·서익헌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4> 서익헌 전경(출처 : 파주교육박물관 소장 사진) <그림 15> 왜곡 사진 보정을 통한 파주목 객사의 주칸 거리 분석

파주교육박물관 소장 사진 중에는 정청을 정면에서 근경으로 찍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15> 사진 분석을 통해 정청 주칸의 근사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정청 지붕의

기와골 개수는 33개로 확인된다. 정청 1칸당 기와골은 9개로 파악되며, 기와의 종류는 중와(암키와 넓이 300mm)로 추정된다. 사진의 왜곡을 보정해 측정한 결과 정청은 정면이 모두 동일하며 1칸이 9자에 해당했고, 정청과 동·서익헌 사이의 공간은 5자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서익헌의 일부인 1칸의 주칸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의 왜곡을 보정한 결과 서익헌 역시 정청의 주칸과 동일한 9자로 판단된다.



<그림 18> 파주초등학교 교정의 초석



<그림 19> 기무부대 내 초석

3) 석축과 기단

파주목 객사 전면으로는 높은 석축이 만들어져 있었다. 석축은 장대석을 이용해 총 3단으로 쌓은 세벌대 석축이다. 정청과 동·서익헌의 건물을 위한 기단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낮은 석재를 1단만 쌓은 외벌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청과 서익헌 사이의 공간에는 출입구가 있었다. 원래부터 있던 시설이라기보다는 학교로 개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 정면으로는 계단이 있었으며, 마당에서부터 출입구까지 오를 수 있는 계단으로 총 7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계단 또한 원래부터 있던 계단이 아니라 출입구를 만들면서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계단은 석축 전면으로 계단을 덧붙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파주목 객사는 임금이 행행하여 유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고양 벽제관의 사례<그림 17>로 짐작하건데 정면에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6> 파주목 객사 석축 및 기단



<그림 17> 고양 객사 벽제관의 계단(출처 : 조선고적도보)

4) 초석과 기둥

초석은 높이가 높은 원형 초석인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하부 직경에 비해 상부 직경을 작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흘림을 준 초석이다. 현재 파주초등학교 교정에는 관아의 문루에 사용한 장초석과 또 다른 초석이 전시되어 있다. 이 초석은 길이 650mm, 너비 530mm, 높이 250mm의 크기를 갖고 있다.<그림 18> 어떤 건물에 사용한 초석인지 알 수 없으나, 객사 사진에서 보이는 초석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목 객사 정청의 복원에 많은 참조가 된다. 이 외에 기무부대 내에서도 한 개의 초석이 확인되었다.<그림 19>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에서 객사 정청에 사용한 초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객사의 부속시설에 사용한 초석일 것으로 보인다.

파주목 객사 정청의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며 민흘림기둥을 사용했다. 사진을 보정해서 측정한 기둥의 직경은 정청의 경우 지름 430mm 정도이고, 익헌의 경우 지름 390m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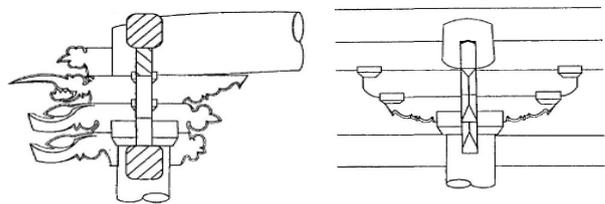
5) 공포

관아건축의 공포는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어 유사한 형태와 초각의 공포를 찾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공포의 출목도 제각각이며, 같은 익공식으로 공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부 형태 및 결구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파주목 객사 정청에 사용한 공포 역시 매우 독특하며, 결구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파주목 객사의 공포는 두 개의 익공을 사용한 이익공이다. 기둥 머리에 꽃은 초익공은 양서형으로 쇠서 상부에 꽃봉오리를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익공은 쇠서 하부에 꽃모양을 조각했다. 이익공과 결구한 첨차는 마구리에 초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은 듯하다. 이익공 상부에는 보머리가 돌출되어 있다. 통상 보머리 끝에는 봉황모양을 조각해서 꽃아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파주목 객사는 조각을 장식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그림 20> 파주목 객사 공포(좌)와 강릉 칠사당 공포(우)



<그림 21> 강릉 칠사당 공포도 (출처 : 강원도, 강원도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2000)

이와 유사한 사례로 강릉 관아의 내아인 칠사당 공포를 들 수 있다.<그림 20, 21> 칠사당은 익공을 세 개 사용한 삼익공 건물이어서 이익공인 파주목 객사와 다른 공포라 할 수 있지만, 익공의 초각이나 조립 방법이 파주목 객사와 매우 유사하다. 칠사당 공포 중 이익공, 삼익공과 결구한 대

첨차, 머리 끝에 꽃아 넣은 봉황 조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파주목 객사 공포와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파주목 객사 귀공포(좌)와 강릉 칠사당 귀공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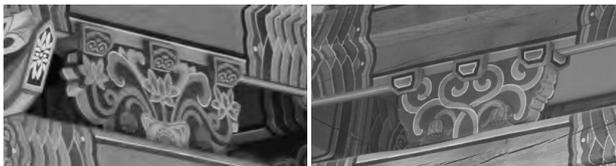
파주목 객사의 귀공포와 강릉 칠사당의 귀공포 역시 유사한 모습이다.<그림 22> 창방의 결구, 창방과 창방 사이에 결구한 초익공의 모습도 유사하다. 다만 파주목 객사 귀공포는 45도 방향으로 이익공 상부에 또 다시 익공 모양을 결구했다. 반면 강릉 칠사당에서는 삼익공 상부에 봉황 조각한 부재를 결구한 차이가 있다. 또 강릉 칠사당은 장혀 끝에 봉황머리를 조각한 반면, 파주목 객사는 봉황머리 없이 마구리면을 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파주목 객사의 공포와 귀공포는 모두 강릉 칠사당의 공포와 매우 유사하기에 향후 파주목 객사를 복원할 때 참조가 될 것이다.

6) 화반

파주목 객사의 화반은 정청과 동·서익헌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그림 23> 창방과는 축으로 결구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화반 상부에는 3개의 소로를 설치하였고 이것으로 장혀를 받치고 있다. 파주목 객사의 화반과 유사한 사례로 원주감영 선화당과 연풍동헌을 들 수 있다. <그림 24> 두 건물 모두 하부는 축으로 창방과 결구하고 상부에는 3개의 소로를 설치해서 장혀를 받치고 있지만, 화반 하단의 조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파주목 객사의 단청이 훨씬 화려했는지 중앙의 꽃문양 단청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림 23> 파주목 객사 화반 부분(출처 : 파주교육박물관 소장 사진)



<그림 24> 원주 선화당 화반(좌), 연풍 동헌 화반(우)

7) 지붕과 처마

지붕의 경우 통상적인 객사와 마찬가지로 정청은 맞배지붕, 동·서익헌은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그림 25> 지붕 끝

에는 막새를 사용했고, 지붕마루에는 양성을 했다. 정청의 용마루 양쪽 끝단에는 용두를 하나씩 설치했고, 내림마루에는 망와를 설치했다. 동·서익헌의 용마루 끝에도 하나의 용두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 처마는 정청과 동·서익헌 모두 겹처마를 하고 있다.<그림 26> 정청과 동·서익헌의 처마 내민 길이 역시 동일한 모습이다.



<그림 25> 파주목 객사 처마 부분(출처 : 파주교육박물관 소장 사진)



<그림 26> 파주목 객사 지붕 부분(출처 : 파주교육박물관 소장 사진)

4.3 파주목 객사 정청의 내부 형태 추정분석

파주목 객사의 내부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부의 가구 및 도리 배치, 정청의 바닥 형태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여러 사례를 검토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또 정청의 창호 구성에 대한 것도 알려진 바 없다. 파주교육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은 모두 일제강점기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이미 창호와 내부가 변형된 다음에 찍혔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1) 가구와 도리 배치

파주목 객사 동·서익헌의 측면은 2칸으로 조성되었다. 전주 객사와 같이 동·서익헌의 측면이 3칸인 객사의 경우는 7량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측면이 2칸인 경우 대부분 5량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파주목 객사의 정청 및 동·서익헌 역시 5량으로 가구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청은 무고주 5량 구조, 동·서익헌은 무고주 또는 1고주 5량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리 위치를 설정하는 변작의 경우 3분 변작과 4분 변작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조선시대 건물 중에서 명확히 3분 변작과 4분 변작을 맞춰 도리를 배치한 사례는 극히 적다. 사진 상으로 보이는 파주목 객사 정청의 경우 3분 변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4분 변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동·서익헌의 내부 고주 초석 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청의 바닥

정청의 바닥을 어떤 재료로 마감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객사들의 사례를 조사해보면 바닥에 전(磚)을 사용한 건물은 극히 적고, 대부분 마루를 둔 것을 알 수 있다.<표 4> 따라서 파주목 객사의 정청 역시 전보다는 마루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주목 객사 정청은 높이가 높은 초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바닥을 전보다는 마루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파주목 객사의 정청에 전이 아닌 마루를 깔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표 4> 조선시대 객사의 내부 형태

구분	현존하는 객사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객사			
	명칭	전	후	비고	명칭	전	후	비고
별동형	안성 객사	○	×	전 복원	가야관	×	×	마루
	평성읍 객사	○	×	전 복원	동명관	○	○	마루
	선성현 객사	○	×	전	부령 객사	×	×	마루
	부여 객사	×	×	마루	황주 객사	○	×	전 추정
	홍산 객사	×	×	마루	벽제관	×	×	전 추정
	전주 객사	○	○	마루	동경관	?	?	마루 추정
	무장 객사	○	○	마루	진주 객사	?	?	마루 추정
	순창 객사	×	×	마루	학성관	?	?	마루 추정
	금성관	×	×	마루	용성관	○	?	마루
	상사관	×	○	마루				
일체형	운운사	○	×	마루				
	낙안 객사	○	×	마루				
누각형	진남관	○	○	마루				
	세병관	○	○	마루				
특수형	기성관	○	○	마루				
	홍덕 객사	×	×	마루				

3) 정청의 창호

객사의 정청에 창호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첫 번째 유형은 각 칸마다 살대를 세워 마감하는 방법으로, 홍살을 설치해서 외부 마당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전면에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해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객사 정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수량을 보인다. 따라서 현존하는 객사를 통해 파주목 객사가 어떤 형태의 창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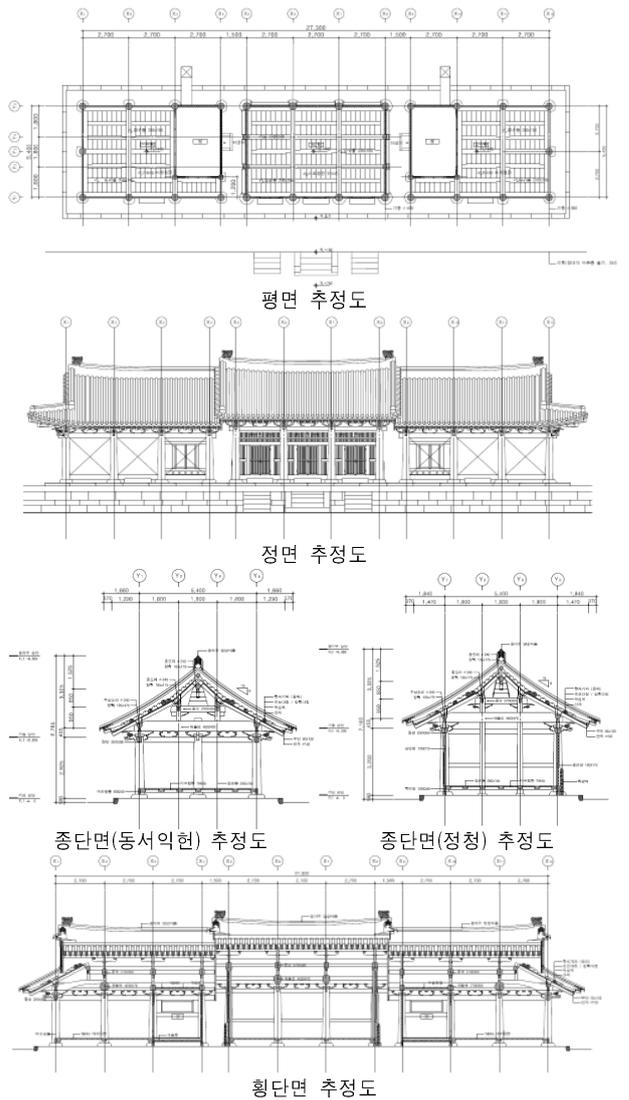
파주교육박물관 소장 사진에서 보이는 파주목 객사 정청은 이미 벽체를 헐어낸 다음 근대식 창호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27> 따라서, 객사 정청에 여단이문이 설치되었다면 인방, 문선 등을 다시 사용해서 창호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인방, 문선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파주목 객사는 홍살을 설치한 창호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대부분의 객사는 학교로 전용된 다음에 촬영된 경우가 많다. 전용 이전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객사는 고양 벽제관 정도이다.<그림 27> 파주목 객사 인근에 위치한 벽제관은 정청의 창호로 홍살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목 객사 역시 홍살을 설치했었다고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 파주목 객사 전면(좌)과 고양 벽제관(우)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형태를 추정하여 도면으로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8> 파주목 객사 추정도

5. 결론

파주목은 개경과 한양을 오가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 한양을 출발해 개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고, 거리상 파주목에서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었다. 또 파주에는 인조의 장릉을 비롯해 공릉, 순릉, 영릉 등 매

우 많은 왕릉이 조성되었다. 이들 왕릉에 친제하기 위해서 임금의 수시로 파주에 들러 파주행궁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영조의 경우에는 모친의 묘소인 소령원이 파주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릉에 친제를 지낸 다음 소령원에 들러 재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및 여러 문헌에 파주 행궁이 등장하지만 파주목에 행궁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는지, 혹은 객사에서 숙박했는지, 또는 동헌에서 숙박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의 숙종과 영조 때 기록에 의하면 임금이 파주에 들러 머문 장소가 행궁이 아니라 객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머무는 장소를 모두 행궁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실제 머무른 장소가 파주 객사 즉 파평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종 때 기록에서만 파평관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에서 파주행궁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대부분 파주목 객사에서 숙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주목 객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1899년 『파주군읍지』의 기록을 보면, 객사 외에 좌우 익랑 40칸에 내외 삼문과 홍살문을 갖추고 있어 규모면에서도 타 읍치와 비교하여 큰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문헌과 파주교육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사진자료에 따르면, 파주목 객사는 정청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3칸, 동·서익헌의 경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이었다. 주칸은 정청의 경우 정면이 모두 동일한 길이로 설정되었고 1칸이 9자에 해당했다. 서익헌 역시 정청과 동일한 길이를 갖고 있었고, 정청과 동·서익헌 사이의 공간은 5자로 파악되었다.

초석은 높이가 높은 원형 초석이고, 기둥은 민흘림기둥이며, 직경은 정청의 경우 지름 430mm 정도, 익헌은 지름 390mm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공포는 이익공으로서 전체적으로 강릉 칠사당 공포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 화반은 머리에 3개의 소로를 사용했는데 원주 선화당의 화반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붕은 통상적인 객사와 마찬가지로 정청은 맞배지붕, 동·서익헌은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지붕 끝에는 막새를 사용했고, 지붕 마루에는 양성을 했으며, 용마루 끝단에는 용두를 설치했다. 처마는 정청과 동·서익헌 모두 겹처마를 하고 있고, 정청과 동·서익헌의 처마를 내민 길이 역시 동일한 모습이다.

파주목 객사 정청과 동·서익헌의 가구구조는 모두 5량의 구조를 갖고 있다. 정청은 무고주 5량 구조, 동·서익헌은 무고주 또는 1고주 5량 구조일 것으로 추정된다. 변작은 3분 변작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4분 변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닥은 정청과 동·서익헌 모두 마루바닥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청의 정면 창호는 홍살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주목 객사인 파평관이 위치했던 곳은 현재 기무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발굴이나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같은 사항은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파주목 객사는 기무부대 주둔지 중에서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77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존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조사는 문헌과 사진을 통하여 본 추정 복원이지만 따라서 객사 복원을 위해서는 이곳에 대한 발굴조사가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면 행궁의 역할을 하였던 지방 객사의 실체가 드러나는 중요한 성과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원도 문화공보담당관실 (1988). 『강원도 중요 목조건물 실측조사보고서-선화당,경포대 등』. 춘천:강원도.
2. 강원도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2000). 『강원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칠사당, 임경당, 해암정』. 춘천:강원도.
3. 경기도 파주군 (1995). 『파주군지. 상』. 파주:파주군.
4. 고전간행회(편) (1994).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울:서경문화사.
5. 국사편찬위원회(편) (1979). 『여지도서』. 서울:규장문화사.
6.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1998). 『경기도읍지 2』. 서울:서울대학교 규장각.
7. 조선총독부(편) (1995). 『조선고적도보』. 부산:민족문화.
8. 파주시·(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15). 『파주목 관아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파주:파주시.
9. 파주시·(사)자연유산보존협회 (2016). 『파주목 관아터 복원정비 계획』. 파주:파주시.
10. 파주시·(주)화우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19). 『파주목 객사영역의 건축특성 학술고증연구』. 파주:파주시.
11.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5). 『읍지 10 : 경기도 1』. 서울:아세아문화사.
12. 여상진 (2005). 조선시대 객사의 영건과 성격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13. 유영수 (1989). 조선시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14. 백중철 (2019). 조선시대 파주목 관아의 위치 추정과 공간구성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7 No.4.
15. 이연노·주남철 (2004). 조선초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0 No.12.
16. 주남철 (1986). 객사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 No.36.
17. 근대 시기 파주목 객사 사진. 파주:파주교육박물관.
18. 구글 어스 항공사진 <http://www.google.com/earth>. 2019.12.
19.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2019.12.
20.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2019.12.
21.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019.12.

[논문접수 : 2020. 08. 31]
 [1차 심사 : 2020. 10. 30]
 [게재확정 : 2020. 10. 30]